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714-530-1367) 로 알려주세요.

종교

힐링명상대회 고려사

LA고려사(주지 묘경 스님, 500 N. Western Ave., LA, CA 90004)가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각산 스님과 함께 하는 힐링명상대회’를 연다. 명상 지도는 한국에서 ‘명상 붐’을 일으키고 있는 각산 스님(참불선원장)이 맡는다. 각산 스님은 한국불교의 정통 수행법인 간화선 뿐 아니라 미얀마와 타이,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초기불교 수행법인 위파사나를 수행한 경험을 살려 초기불교와 간화선 통합명상을 이끌 예정이다. 참가 희망 신청은 3월10일까지 해야 하며 참가비는 150달러이다. 참석 인원은 선착순 100명으로 제한한다. 각산 스님은 “명상이은몸 건강뿐 아니라 마음이 평안해지고 정신이 맑아져 스트레스를 풀어 준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오직 침묵 명상으로 ‘바로 지금 여기’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562)833-5620

.....

호 글짓기 · 그림 공모 호사랑선교회

호사랑 선교회(가 3월 1일부터 23일(토)까지 제 7회 미주 청소년 ‘호 글짓기 그림 공모전’을 연다. 주제는 ‘내 가족의 자랑거리(The source of Pride and Joy of My family)’이다. 우편 혹은 방문(7342 Orangethorpe Ave. #B113, Buena Park CA 90621), 또는 인터넷 (www.hyosarangusa.org/event, 글짓기에 한함)으로 제출하면 된다. 글짓기는 Letter용지 3페이지(글자크기 12pt) 분량으로, 그림은 크레파스화, 수채화, 드로잉, 아크릴 등을 이용해 초등부(1st-5th)는 14"x17", 중고등부(6th-12th)는 18"x24"의 크기로 제출해야 한다. 참가비는 10달러(check payable to Hyosarangusa)이며 시상은 4월 6일 (토) 10시, 홀러튼장로교회(515 S. Brookhurst Rd., Fullerton CA 92833)에서 열린다. 대상(2명) \$500, 최우수상(4명) \$300, 우수상(6명) \$200의 상금이 주어진다.

▶ 문의: (714) 670-8004, (562) 833-5520
E-mail: hyosarangusa@gmail.com



변화를 일으키는 사랑(눅 10:25-37)

성서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분이 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두움과 공허한 상태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빛이 있으라” 명령하셔서 어두움이 깔린 세상을 빛이 있는 세상으로 변화시키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24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천대 받고 고통 받는 히브리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축복하신 백성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셔서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본문에는 그냥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강도 만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선택 사마리아인이 살려낸 이야기입니다. 즉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중요한 일을 한 것입니다. 성서는 이런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럭저럭 세상을 살다가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일에 사명을 다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냥 놔두면 끝없는 폭력, 탐욕, 증오, 이기심으로 치달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문에 나오는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처럼 사랑의 손길, 도움의 손길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킵니다. 수산나라는 여인은 여러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살던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녀는 불타버린 집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집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루고 거르지 않고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73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산나는 영국 역사의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존 웨슬리와 6,000여 곡이 넘는 찬송가를 작곡한 찰스 웨슬리의 어머니입니다. 불로 다 타버린 폐허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계속한 손길이 영국을 변화시키는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변화를 보면서 삶의 성취감,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은 강도 만난 자에게 치료를 해 주어서 죽어가던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볼 때 매우 기뻐할 것입니다. 이처럼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볼 때 기쁨과 보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도움의 손길, 수고의 손길을 퍼서 변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화가 주는 기쁨, 행복, 보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은 변화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있는 그대로 유지하고 지켜라” 하시지 않고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죄의 노예 된 인간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세상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는 작은 일에서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시면서 세상은 변화되기 시작했고,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손길을 펴면서 세상은 변화되기 시작하고, 강도 만난 자에게 포도주와 감람유로 치료해 주면서 세상은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작은 일에 정성을 기울일 때 틀림없이 세상은 변화됩니다. 그리고 변화된 세상을 보면서 성취감, 행복, 보람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강용규 목사-

라인댄스 초,중급 반

활한인생을 위한 건강한 춤!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성공회 가든그로브교회 강당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옆

시간
매주 수-목요일 오전10시30분
매주 금요일 오전10시

☎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

비즈니스 사장 & 사모님! 사업 자금이 필요합니까?

주 택 융 차 · 재 융 자 · 4989 수정 및 뒤집기

- \$20,000 to \$5,000,000
- 당일 또는 다음 날 자금 지원
- 미국과 캐나다를 통해 기업 자금을 지원합니다.
- 당일 대출 승인
- 7 일 영업
- Bad or Good Credit
- Business Line of Credit
- Equipment Financing
- Invoice Financing
- Merchant Cash Advance
- SBA Loan

*85% Loan to Value 매수
*100% 혁신 금융
*75% CLTV on 2nd & 3rd
*\$20,000 to \$10,000,000
*7-10 일간의 자금 지원

California Finance Lender 60DBO-76030

RCD Capital
www.rcdcapital.com

Tel: **800.369.7009**
Fax: 800.369.1087
E-Mail: info@rcdcapital.com